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인규	학번	
이메일	divinejr@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국가) 미국
기 간	2018.12.27~2019.12.27	[귀국일: 2019년 12월 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2월 12일

신 청 인 : 최인규 (인)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1.1 기후

San Diego는 한여름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다. 햇볕은 따갑고 덥지만 그늘에서는 시원하거나 혹은 춥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9년의 경우 연줄 비가 내린 날이 많았고, 여름도 특별히 덥지 않았다. 현지인들에 의하면 특이한 경우라는 말이 많았다. 비만 오지 않는다면 쾌적하고 좋은 환경이다. 미국내에서도 은퇴후에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이유가 다 있는 듯하다. 대부분 아파트에는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지만, 한 여름의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가동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보통은 선풍기만 있어도 충분하다.

1.2 지리적 위치

샌디에고는 미국 서부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멕시코 국경과도 차로 3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전역으로 가는 국내선 노선이 많아서 여행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캐나다나 멕시코, 알래스카 등지 여행도 불편함이 없다. LA 국제공항은 승용차로 넉넉히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직항을 필요로 할 경우 LA공항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1.3 생활여건

생필품과 식재료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다. 하지만, 외식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통상 가격 외에 기본 15%의 팁을 제공해야 하고, 7.75%의 소비세가 추가된다. 대략 표시가격의 1/4을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학교가 있는 라호야 지역은 흑인들은 많지 않고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동양인들과 백인 위주이며, 다운타운은 홈리스들이 많이 있어 다소 위험할 수 있다. 라호야(La Jolla) 지역은 치안이 좋고, 쇼핑과 외식 등을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UCSD에 대한 접근성 역시 라호야 지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렌트는 최근 상승세가 가파르데 1 bed 1 bath가 월 \$2,300-2,500정도이다. Zillow.com 등에서 원하는 지역에 집을 검색해보고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서 방문한 후 마음에 들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가격에서 별다른 변동은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복비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주로 La Jolla 지역 북쪽에 있는 Del Mar에 많이 거주한다.

1.4 학교 정보

La Jolla 지역에 거주하는 UCSD 학생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Doyle 초등학교에 다니며, 중학생(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은 Standley 중학교에 다닌다. 고등학교는 University High School이 있는데, 모두 공립학교이며 학비는 무료이다. 도일 초등학교는 UCSD 대학원생, 교수 등 자녀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국제학교 같은 분위기이며, 한국 학생 비율도 적지 않다고 한다.

1.5 초기 적응

초기 빠른 생활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가지 있다. 운전면허 취득, 차량 구매,

은행계좌 개설, 인터넷 및 TV 설치, 핸드폰 개통 등이 그것이다. 핸드폰은 한국에서 H2O와 같은 저가통신 USIM을 구입하면 현지 도착 후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 계좌 개설이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집 계약서(rental agreement) 등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SSN 발급이 중단되어 거주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내 신용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발급받아도 한도가 1,000~1,200불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귀국할 즈음에 한도를 2,700불로 올려 주기도 한다.

1.6 운전면허 및 자동차 구매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출국전 한국에서 현지 운전면허 필기시험 예약을 미리 해놓고 가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 DMV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할 DMV를 선택한다. 참고로, 라호야에서 가장 가까운 DMV는 Clairemont이다.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픈하는데 운이 없으면 8시에 가도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일찍 가는 것이 좋다. DMV는 느린 일처리와 긴 대기시간, 그리고 직원에 따라 다른 일 처리 기준 등으로 악명높다. 늘 빠른 일처리보다는 느긋한 자세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칠 수 있다. 예상문제와 거의 똑같이 나오므로 예상문제만 외우면 된다. 필기종료후 바로 합격 여부가 나온다. 시험의 난이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일 UTC 지역에 거주한다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물론, 차가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UTC를 중심으로 하는 버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어지간한 이동은 가능하다. UTC 지역에 거주할 경우 마트, 식당, 쇼핑 등은 차 없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이다. 학교는 버스로 15~20분 정도 거리이므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GLI 과정은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의 상당수는 각국의 공무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영어만 뒷받침된다면 수업은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 총 3학기(겨울, 봄, 가을)로 각 학기당 4학점짜리 수업 3개를 수강하면 된다. 첫 학기의 의무수강 과목 1개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수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GLI 과정이 아닌 수업을 들을 경우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강신청을 하는데, 교수에 따라 GLI에 대한 인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원하는 과목을 듣고 싶다면 가급적 일찍 수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한편, ESL를 듣는 경우에는 과목당 학점이 2학점에 불과해 학기당 ESL 2과목에 여타 2과목을 더해 총 4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때문에, 수업의 부담을 덜고 싶다면 가급적 ESL 면제 조건을 충족해두는 편이 좋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매 학기 3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총 9과목을 들으면 수료가 된다. 대부분의 수업은 KDI와 마찬가지로 수업과 과제, 발표, 시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난이도는 KDI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영어에만 자신 있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미국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목조 구조 건물들이다. 때문에, 층간소음에 상당히 취약하다. 아랫층에 살면 윗층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를 늘상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윗층에 산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기하게도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도 위층으로 올라온다. 또한, 바닥에 가깝게 앉아있으면 아래층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도 들린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위아래층의 방음이 안되는데도, 옆집에서 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같은데, 지인의 경우에도 위아래집 소리는 늘 듣고 살지만, 옆집 소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예민한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전층을 사용하는 타운홈이나 단독 주택에서 살 것을 추천한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

샌디에고는 서부의 국립공원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하면 많은 국립공원들을 둘러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장거리 로드 트립을 준비하는 경우 차량의 컨디션에 신경을 써야한다. 다행인 것은 아무리 오지와 같은 곳도 드문드문 이동하는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차량이 도로 중간에서 멈추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한 차량이 오래되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UTC 지역의 경우 매리엇 호텔에 Hertz 렌터카가 입점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더라도 처음 차량을 인수받을 때 타이어 상태들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Hertz가 대기업이라 이런 부분에 철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6.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의 경우 J-1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캐나다 등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활용할 일은 없다. 미국 국내선의 경우 여권만 있으면 이동에 지장이 없다. 면허증을 발급 받은 후라면 여권도 필요 없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전재영	학번	201811004
이메일	Jyjeon1987@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GLI	(국가) 미국
기 간	2019년	[귀국일: 2019년12월2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샌디에이고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며, 여름에는 건조하며 시원하며, 겨울에는 온난습윤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겨울에도 최저기온이 10도 내외이며, 한여름에도 최고기온이 30도를 크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즉, 굉장히 생활하기 쾌적한 장소이다. 다만, 2019년에는 6월까지 자주 강우가 있었는데, 이는 현지인들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느끼는 현상이었다.

지리적 위치는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40분 거리에 멕시코 국경이 있다. UCSD 가 소재해 있는 라호야 지역은 대학이 중심이 된 도시로서,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한 편에 속한다. 다만, 샌디에고 다운타운 남쪽 국경 근처로 갈수록 치안 상황이나 타운의 쾌적함은 악화 된다고 한다. 기후와 생활환경은 쾌적하나, 이에 따라 집의 렌트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1BED 1 BATH 기준으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월 렌트 2000달러 이상이며, 부수적인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비용, 보험료 등을 합하면 매달 고정비용으로 3000달러 이상 소요됨.

초기에 생활적응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는데, 예상과달리 DMV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지 업체 (아파트 리싱오피스, 전기, 인터넷 회사) 의 행정은 원활하였으며, 친절하였음. 개인적으로는 미리 집을 구하지 않고, 호텔에서 몇일 머물면서 집을 직접보고 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웠음. 일단 집을 구해야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기에 일단 집부터 구하는 것이 효율적인듯 싶음. 또한, 자동차는 카맥스에서 구입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음.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얻는 대신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음. 그리고, 운전면허 실기시험의 경우 한국에서 운전을 잘 하더라도, 시험 방식이나 코스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이 필요함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SD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명문으로 평가 받고 있는 학교임. 다만, UCSD GLI 과정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습득하는 지식의 수준은 매우 평이함. 그리고, 학과 과목은 정치학, 경제학, 언어과정 등등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음. 한 학기에 12학점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각자의 관심분야에 집중하여 수강신청을 한다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됨. 특히 UCSD GPS에는 한국의 외교 관련 저명한 교수님이 계심.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한반도 정세 전문가로서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으며, 수업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있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학기 당 최소 12학점을 이수 해야 함. 수업은 각 과목별로 구성이 상이함. 수강신청전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임. 전반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크지 않다면,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비학위 과정의 경우 기숙사는 제공이 되지 않음. 학교과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였는데, 환경은 쾌적하였음. 다만, 렌트가 지나치게 올라와 있다는 인상을 받음. 샌디에고에는 훌륭한 미국스타일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인앤아웃버거, 해빗버거, 파이브가이즈 등등의 버거류와 리틀이탈리의 필리피피자, 그리고 필즈바베큐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곳의 버거 피자 바비큐는 한국보다 월등하다고 느낌. 그리고 몇몇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쌀국수집도 매우 훌륭하였음. 또한, ballast brewery, stone brewery 등등 다양한 수제 맥주집들이 있는데, 이곳들도 양질의 맥주를 맛볼수 있으며, 가을에는 맥주축제도 열리는데 이때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맥주를 맛볼수 있음.

개인적으로 한국음식의 경우 대부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었음. 시온마트, H마트 등 대형 한인마트가 있어서 식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UCSD INTERNATIONAL CENTER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미국인 UCSD학생 또는 주민과 매칭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보통 1주일에 한번정도 만나게 되는데, 영어공부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 매우 즐거웠음. 이는 처음 가입비를 제외하고, 현지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무료임.

샌디에고 주변에는 유명한 서핑 해변들이 많이 있으니, 서핑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림. 다만, 본인은 6월에 서핑을 하던 중 Stingray(가오리류, 얇은 바다에 서식)에 발을 물려 한동안 고생을 한 경험이 있으니, 여름에 해양 활동을 할 때는 stingray, jelly fish등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년차에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감. 미국 체류기간이 1년인데, 정착에 1달, 미국 생활 정리에 1달 정도가 소요되면 실제로 편하게 생활할수 있는 기간은 더욱더 줄어들게 됨. 학업 공부 뿐만 아니라, 현지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짐. 개인적으로는 현지인들과의 클럽활동이나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한것에 후회가 됨.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의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정이 늦게 잡히기 때문에, 학교를 결정한 이후 최대한 빨리 행정처리를 해야 여유있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음. 출·입국은 DS2019가 있는 경우 별 무리가 없음. 다만, 일행 당 10000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함. 그리고, 샌디에고는 한국에 직항이 없기 때문에 보통 LA공항에서 샌디에고로 이동하거나, 타국에 경유를 하여 샌디에고로 옴. LA 공항의 입국절차는 줄이 매우 길어서 최대 2시간까지 대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샌디에고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절차에서 그러한 어려움은 없음. 인천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여 LA에 아침에 도착하면 샌디에고까지 무료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매우 유용함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18년 12월에 샌디에고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외국 경험이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정착이 완료된 이후 학교, 취미생활 등등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아쉬움이 없도록 부지런히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2 월 23 일

신 청 인 전 재 영 (인)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253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